

‘이다’ 구문과 통사적 접사설을 다시 논의함*

시 정 곤

Abstract

Shi, Chung-Kon. 2005. 8. Re-Argument of ‘*Ida*’ Construction and Syntactic Affix. *Korean Linguistics* 28, 55-80.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basic properties about ‘*ida*’ construction. On the one hand, I argue against the previous works on syntactic affix, pointing at their problem.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propose that there are several types of syntactic affixation and suggest the properties of them. In this paper, I will keep to Shi(1993)’s proposal, which ‘*i*’ of ‘*ida*’ is a syntactic affix, holding syntactic and morphological information.

주제어: 이다 구문(‘*ida*’ construction), 통사적 접사(syntactic affix), 격표지(case marker), 핵이동(head movement), 구개음화(palatalization)

1. 도입

본고에서는 ‘이다’ 구문을 통사적 접사의 관점에서 이해한 논의를 중심으로 그 경험적, 이론적 배경과 타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통사적 접사설을 비판한 논의에 대해 나름대로 해명과 반론을 제시하는 한편, 통사적 접사설이 안고 있는

* 초고에 대해 날카로운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이 논평으로 인해 논의를 좀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 다듬을 수 있었다. 이 논문은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분과와 서울대 언어교육원이 공동 주최한(서울대학교 2005.5.6) 특별워크숍(주제: 한국어 계사 ‘-이(다)’의 쟁점)에서 “이다 구문과 통사적 접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을 다시 다듬은 것이다. 워크숍때 좋은 질의와 논평을 해주신 참석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한계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로 한다.

‘이다’ 구문에 대한 연구는 국어 문법 연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이다’ 구문이 음운, 형태, 통사, 의미, 화용에 이르기까지 국어 문법의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다’ 구문의 문제는 ‘이다’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시적인 관점보다는 국어 문법체계 속에서 ‘이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시적인 관점이 더 요구되기도 한다.

좀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논의를 위한 기본 전제 조건 3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다’ 구문에 대한 연구의 다양성과 통사적 접사설의 유형, 그리고 문법적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 조건 등을 제시할 것이다. 이후 3장에서 8장까지는 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통사적 접사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비판에 대한 반론을 펴고자 한다. 3장에서는 격표지 문제, 4장에서는 삽입 불가능의 문제, 5장에서는 구개음화현상의 문제, 6장에서는 생략가능성의 문제, 7장에서는 ‘이다’와 ‘아니다’의 상관성, 8장에서는 ‘이다, 답다, 같다’ 구문의 유사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논의를 간략히 요약하고 정리하기로 한다.

2. 전제 조건

2.1 접근방법과 관점이 다양하다

‘이다’에 대한 논의는 ‘이다’ 구문의 문법적 성격을 밝히는 문제와 ‘이다’ 구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인가 하는 점으로 압축될 수 있다. 즉, 전자는 ‘이다’의 문법적 접근이고 후자는 ‘이다’ 구문의 의

미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자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다’ 구문이 보여주는 문법적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것과, 다른 하나는 ‘이다’ 구문에서 ‘이다’의 문법적 지위를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는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다’의 명칭 문제에 초점을 더 둔 것이 아닌가 한다.

후자의 의미적 접근도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다’ 자체의 의미적 성격을 구명하는 것과 ‘이다’가 선택하는 논항의 의미제약을 통해 구문의 의미적 유형을 살펴보려는 시도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의 경우는 ‘이다’가 어휘적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논항구조나 의미역을 부여할 수 있는가 등에 초점을 맞춘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는 남길임(2004)에서와 같이 ‘이다’ 구문을 의미적으로 분류한 예이다.¹⁾ 물론 이 두 가지도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

이 접근 방법 가운데 본고의 통사적 접사설은 전자의 첫 번째 접근 방법, 즉, ‘이다’ 구문이 보여주는 문법적 현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통사적 접사설의 유형과 다양한 접근방법을 밝힌 이유는, 통사적 접사에 대한 비판(또는 오해)의 상당 부분이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통사적 접사설이 ‘이다’ 구문이 갖고 있는 네 가지 접근 방법의 결과를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이것은 비단 통사적 접사설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다.

1) 남길임(2004)에서는 ‘이다’ 구문을 명제적 구문(지시적 구문, 중의적 구문, 속성적 구문), 양상적 구문(양태적 구문, 상적 구문), 기타 구문(관용구문, 상화의 존적 구문, 현장 발화적 구문)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입장이 그것이다.

2.2 통사적 접사설의 유형도 다양하다

‘이다’ 구문을 통사적 접사로 설정한 대표적인 연구를 보면, 고창수(1985, 1992), 시정곤(1993, 1994, 1995), 안명철(1995), 황화상(1996, 2005) 등을 들 수 있는데, 사실 그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접근방법과 관점에서 다소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할 것인데, 그것은 뒤에 언급할 통사적 접사설에 대한 비판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먼저 고창수(1985, 1992)에서는 ‘이다’의 ‘이’를 통사적 파생접미사(용언화접미사)로 처리하고, ‘이’가 통사부에서 NP를 용언으로 바꾸어주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NP+이]는 통사적 파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선행 NP에 격표지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시정곤(1993, 1994, 1995)에서는 고창수(1985)의 통사적 접사의 기본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이다’ 구문이 보이는 다양한 형태, 통사적 현상을 제시하고 통사적 접사와 핵이동이라는 개념이 이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안명철(1995)에서는 ‘이다’ 구문의 문법적 현상을 설명하기보다는 ‘이’가 통사적 성격뿐만 아니라 어휘적 파생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즉, ‘이다’의 ‘이’가 어기로 단어나 어근을 취하기도 하고, 구를 어기로 취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안명철(1995)에서 어휘적 파생으로 구분한 예로는 “걱정이다, 다행이다, 엉망이다, 최고이다, 최악이다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통사적 접사와는 다른 통사적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

- (1) 가. *이 방은 우리가 만든 엉망이다. (안명철(1995) 예문 (24))
- 나. 이 방은 매우 엉망이다. (안명철(1995) 예문 (25))
- 다. ?이 방은 엉망이 아니다. (안명철(1995) 예문 (30))

위에서 (1가)는 관형 수식이 불가능하고, (1나)는 오히려 부사의 수식이 가능하며, (1다)에서는 ‘-이 아니다’의 부정문이 어색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특징이 ‘학생이다’류와는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만으로 ‘걱정이다’류를 어휘적 파생으로 기술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먼저, ‘걱정이다’류가 어휘적 파생이라면 어휘부에서 ‘걱정+이다’와 같은 과정을 거쳐 파생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걱정들이다, 최고들이다’ 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파생과정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양정석(2001)에서도 두 가지 유형의 ‘이다’ 구문을 가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즉, 하나는 “지시적 의미+속성적 의미”를 가진 유형이고(두루미가 학이다/철수는 구두쇠이다), 다른 하나는 “속성적 의미”를 가진 유형이다(나는 경애가 최고다). 그리고 이때 두 번째 유형에는 공식적인 어휘부의 재구조화 규칙이 적용되어, “[최고]N+[이]V”의 구조가 “[최고이]V”가 된다는 것이다. 안명철(1995)에서 어휘적 파생법으로 처리하던 것을 양정석(2001)에서는 재구조화규칙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그러나 어휘적 파생과 마찬가지로 재구조화 규칙의 타당성도 여전히 의문이다. 남길임(2004:24)에서도 지적인 바와 같이 재구조화의 조건이 되는 ‘속성적’ 명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고 어느 범위까지 재구조화를 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걱정들이다, 최고들이다’와 같이 통사적 구에 접미하는 ‘들’과 같은 요소의 삽입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문제이다. 그리고 단지 속성적 의미에 의해 ‘최고이다’가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면, ‘최고가 아니다’도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본고는 ‘걱정이다’류가 보이는 특이성은 선행어근의 의미적 속성(서술성명사의 가능성)과 ‘이다’ 구문의 통시적 변천과정에 기인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황화상(1996)에서도 체언 서술어의 어휘화라는 개념을 언급한 바 있는데, 통시적 변천과정이라 함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먼저 어근의 의미적 속성을 가정한다면 ‘걱정이다’류의 구조는 일단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 (2) 가. [[이 방은 매우 엉망]이다]
나. [[그 사람의 재주는 진짜 최고]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핵이동을 통해 형성된 ‘엉망+이다’와 같은 구조가 통시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다. ‘걱정이다’의 경우 ‘무슨 걱정이나?’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이 단어는 아직도 통사적 성격과 어휘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안명철(1995)에서는 ‘걱정이다’류가 특정 구문과만 호응관계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점도 오히려 서술성 명사의 의미와 통시적 절차를 통한 어휘화라는 우리의 가정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 (3) 가. 이 약은 감기에 최고이다.
나. 철수는 그 일로 자랑이다.
다. 철수는 서양 문화에 적대적이다.

위의 예처럼 ‘최고이다’와 ‘자랑이다’, ‘적대적이다’가 [NP1이 NP2에 V]와 [NP1이 NP2로 V]와 같은 특정 구문과 관계를 맺는 이유도 ‘최고, 자랑, 적대’ 등이 서술성명사로서 그 의미가 특정 구문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이제 황화상(1996, 2005)의 통사적 접사설을 살펴보자. 그는 선행어간과 통사적 접사 ‘이’의 결합이 어휘부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다. 결합방법으로 핵이동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결합장소가 어휘부라는 점을 제외하면 일단 시정곤(1993)을 토대로 하고 있다. 다른 점이라면 명사, 동사 자질을 가지고 문법현상을 설명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휘부에서 ‘명사+이’의 결합체는 명사와 동사의 자질을 공유한 [+N, +V] 자질을 갖게 되는데, 이때 [+N] 때문에 선행명사가 관형어의 수식이 가능하며, [+V] 때문에 서술어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선웅(2000)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만약 ‘명사+이’의 결합체가 [+N, +V] 자질을 가지고 있다면 부사의 수식도 가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철수는 훌륭히 학생이다). 또한 접사의 결합은 본질적으로 형태론적 과정이기 때문에 결합을 어휘부에서 해야 한다면, 그 결합형태 또한 통사부에 입력된 후에는 더 이상 통사적 운용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²⁾ 그러나 ‘명사+이’의 결합체는 통사부에 입력된 후에도 통사적 운용에 관여한다. 즉, [+N] 자질은 관형어 수식을 위해 통사부에서도 기능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2.3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우리는 통사적 접사설은 ‘이다’ 구문이 보여주는 다양한 문법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상태에서 ‘이다’ 구문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문법 체계 내에서 이론적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 예를 들어 통합어휘론적 가설에 따르면 어떤 통사규칙도 형태론적 자질과 범주를 언급할 수 없어야 한다.

- (4) 가. ‘이다’ 구문이 갖고 있는 음운, 형태, 통사적 특성들을 이론적으로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왜 ‘-이-’의 선행 명사구에는 격표지가 나타날 수 없는가?
 - ② 왜 ‘-이-’와 선행 명사구 사이에 어떠한 요소도 삽입될 수 없는가?
 - ③ 왜 ‘-이-’는 구개음화의 환경이 되는가?
 - ④ 왜 ‘-이-’는 음운론적 환경에 의해 생략 가능한가?
- 나. 긍정문(이다)와 부정문(아니다)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다. ‘이다’ 구문과 같은 문법적 양상을 보이는 ‘답다, 같다’ 구문을 아울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4가)는 ‘이다’ 구문이 보이는 음운적, 형태적, 통사적 특이 현상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며, (4나) 또한 ‘이다’ 구문을 논의할 때 단순히 ‘NP가 NP이다’라는 긍정문만을 가지고 논의해서는 안 되고 ‘NP가 NP가 아니다’라는 부정문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4다)는 국어 문법에서 ‘이다’ 구문과 유사한 형태·통사적 양상을 보이는 유형을 함께 묶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좀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다’ 구문의 문제를 바라볼 때, 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정곤(1993, 1994, 1995)에서 제기한 통사적 접사 논의는 바로 위와 같은 전제 조건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면서 ‘이다’ 구문과 통사적 접사설에 대해 하나씩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한다.

3. 격표지 문제

‘이다’ 구문의 첫번째 의문은 ‘-이-’의 선행 명사구에 격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가장 대표적인 ‘이다’ 구문의 문

법적 특이현상으로 여러 학설에서 다각도의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5) 가. 철수는 학생이다.
나. *철수는 학생{이/을/과/에....} 이다.

위에서 ‘-이-’의 선행 명사구 ‘학생’에는 격표지가 붙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통사적 접사설에서는 ‘이’를 통사적 접사로 가정하면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정곤(1992, 1993)에 기대에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통사적 접사 ‘-이-’는 [-FF]자질을 가져 [+FF]자질을 가진 선행 핵 ‘학생’을 유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 (6) 가. 철수는 [[[학생]_N]_{NP} 이_v]_{VP}다.
나. 철수는 [[[t]_N]_{NP} [학생이]_v]_{VP}다.

(6가)은 (5가)의 D-구조를 보인 것이고 (6나)은 S-구조를 보인 것이다. (6나)에서 핵인 ‘학생’은 [+FF]자질을 가지며 [-FF]자질을 가진 ‘-이-’에 의해 유도되어 이동한다. 국어의 격 부여가 S-구조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이-’가 인접 명사구에 격을 부여할 수 없는 이유는 이와 같이 핵 이동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핵 이동 장치는 선행 명사에 격표지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줄 뿐 아니라, ‘[철수는 [착한 학생]이다]’와 같이 ‘학생이다’의 구성이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해결할 수 있으며, ‘아니다’ 구문에서는 왜 선행명사구에 격표지가 실현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통사적 접사설의 견해에 대해 그간 여러 비판이 제시되었다. 김정남(1998)³⁾과 양정석(2004)에서는 부정격 논의를 들어 위의 문

3) 김정남(1998)에서 통사적 접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재비

제를 부정하려고 했다. 양정석(2004)에서는 격조사제약과 관련하여 “이미 주어져 있는 격 이론의 실행 방법으로도, 어떤 명사구에 추상 격의 할당이 행해졌으면서도 형태적으로는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언급은 통사적 접사설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이 격표지 비실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부정격의 논의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왜 ‘이다’ 바로 앞의 이 자리에만 부정격이 실현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다’ 구문과 유사한 ‘아니다’ 구문에서는 왜 같은 자리에 부정격이 적용되지 않는가(격표지가 실현되는가) 하는 점도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양정석(2004)에서는 핵이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나는 경애가 최고다”와 같은 문장은 통사적 접사설에서는 이동 전의 기저 구조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통사적 접사설은 ‘이다’의 모든 구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고이다’류는 어쩌면 ‘명사+이다’가 하나의 어휘로 굳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다(2.2 참조). 따라서 이 부분을 공식적인 핵이동과 같은 절차로 설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만약 관용적으로 굳어진 ‘이다’ 구문의 경우(지금 고향에 가는 길입니다)는 더욱 어려울 수도 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이다’ 구문의 예에 적용된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⁴⁾ 다만, 본고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면서 속성적 의미가 강한 ‘걱정이다’류도 서술성명사의 가능성과 통시성을 고려해 보면 ‘학생이다’류

판은 이선웅(2000)을 참조할 수 있다.

4) 만약 동사 ‘가다’ 구문을 [NP가 NP에/로 가다]로 해석하려고 할 때, ‘저승에 가다’나 ‘맛이 가다’라는 예를 들어 이러한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와 비슷한 기저구조를 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양정석(2004)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이동의 제약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 (7) [[우리가 그 때 주목했던 것은 [[CP[모든 현상이 [[다른 모든 현상과
t]_i? t]_{VP} t]_{IP} t]_{CP} t]_{VP} t]_{IP} 상관적이었음이었다]_{CP} [양정석(2001)(7)]

위의 구조에서 명사구들은 내부의 CP를 넘어가지 못하는데, ‘상관적이-’와 같은 형태는 내부 CP의 경계를 벗어나 이동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핵이동은 XP이동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의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본다. 문제는 문법현상이지 이론이 먼저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론은 현상을 통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⁵⁾

한편 이선웅(2000:77)에서는 “접미사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접미사설을 주장하는 연구가 택하고 있는 문법 모형이 비경제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박진호(1994)와 임홍빈(1997)에서 제기한 ‘의존성’과 ‘재구조화’라는 개념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것을 통사적 접사의 핵이동이라는 것을 상정하여 공연히 문법을 방만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설명력은 인정하되, 너무 문제가 커진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어차피 필자의 통사적 접사설은 비단 ‘이다’

5) 사실 이동의 제약만을 놓고 본다면 ‘철수는 착한 학생이다’라는 구문에서 이미 일반적인 이동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착한 학생]_{NP}이라는 구조에서 ‘학생’이 이동했다면, 이것은 수식어를 놓아두고 피수식어가 이동한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이동의 이론과는 동떨어진 경우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동 후에 흔적을 삭제하여 구조를 변형시킨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흔적을 복구하여 의미해석을 시도한다든지 하는 세부적이고도 기술적인 방법들이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설명이 일반이론의 이동규칙에 부합하느냐의 여부보다는 과연 국어문법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이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면 국어현상에 맞는 새로운 이동이론을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닐까.

구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국어 문법 전반에 걸친 시도였다는 점에서 일견 이러한 지적을 당연히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통사적 접사라는 개념설정이 국어 문법 모형에 얼마나 적합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한다. 다만 여기서는 과연 ‘의존성+재구조화’가 ‘통사적 접사+핵이동’과 일치하는 개념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두 개념은 한편으로는 유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차이를 보인다. 즉, ‘이’가 자립성이 없고, 선행명사와 결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문법적 기술의 측면이 강한 반면, 후자는 문법적 설명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즉, 후자는 ‘이’가 의존성을 띠고 재구조화를 겪는다는 사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가 의존적이며, 어떻게 의존적인가, 그리고 ‘재구조화’란 왜 일어나며 또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다.⁶⁾

남길임(2004:25)에서는 선행 명사구의 격표지 비실현 문제가 ‘이다’가 접사라는 데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 현상을 조사 ‘이’와 ‘이다’의 어휘 의미적 유사성과 의미적 잉여성에 의

6) 심사자는 이에 대해 ‘의존성’과 ‘재구조화’에 비해 ‘통사적 접사+핵이동’이 왜 문법적 설명에 더 무게를 둔 것인지에 대해 근거를 밝히라고 지적하고 있다. 필자의 설명력은 그리 심오한 개념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재구조화는 어떤 특정 구조가 $A \rightarrow B$ 로 재구조화 되었다는 식으로 언급된다. 필자가 이에 대해 설명이 아닌 기술의 측면이 강하다고 한 것은 첫째, 이러한 재구조화가 일반성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특수한 구조에서 특수한 목적으로만 이용된다. 둘째, $A \rightarrow B$ 로 재구조화 되었다는 것은 그 이유나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셋째, 재구조화가 공시적인 규칙인가 하는 점도 의문이다. 필자의 견해는 재구조화는 공시적이라기보다는 통시적 절차에 의한 구조변화를 공시적으로 언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핵이동은 ‘이다’ 구문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동의 과정과 이유를 언급할 수 있으며, 공시적인 규칙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설명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한 것이라고 했다. 즉, 조사 ‘이’와 ‘이다’가 ‘지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잉여성 때문에 조사 ‘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도 통사적 접사설의 논리적 문제를 지적한 것은 아니며, 다른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두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남길임(2004)에서는 마치 시정곤(1993)에서⁷⁾ 선행 명사구의 격표지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다’를 접사로 간주했다고 주장하면서(김의수(2003)에서도 이러한 시각이 엿보인다), 격표지 비실현 문제가 다른 곳에도 일어나고 있으니 그럼 그것을 모두 접사라고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그러나 시정곤(1993)에서는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다. 즉, 시정곤(1993)에서는 ‘이다’를 통사적 접사로 간주한다면 격표지 비실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논리이지 그 역도 모두 참이라는 것은 아니다. 둘째, 남길임(2004)에서 제시한 의미적 잉여성이라는 대안은 그리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격표지 비실현은 [지정]의 의미만을 보이는 ‘이다’ 구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다’의 모든 유형의 구문에서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길임(2004)에서는 스스로 ‘이다’ 구문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양상적 의미를 가진 ‘이다’ 구문과 [감탄], [제시], [알림] 등의 의미를 가진 기타 구문도 제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남길임(2004)의 견해가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지정]의 의미를 가지지 않은 ‘이다’ 구문에서는 격표지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의미적 잉여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과연 그런가?

또한 남길임(2004)의 주장에 기댄다면 ‘철수가 학생이다’는 [지정]의 의미를 갖지만, 그 부정문인 ‘철수가 학생이 아니다’는 결코 [지정]의 의미를 가질 수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정문에서는 격표지가 실

7) 남길임에서는 시정곤(1993)을 직접 인용하면서 통사적 접사설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말한다.

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부정문에서는 [지정]의 의미가 없는가? 여기서는 이에 대해 더 이상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다.

4. 삼입 불가능 문제

‘-이다’ 구문의 두번째 의문은 선행 성분과의 사이에 어떠한 요소도 삼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정곤(1993)에서는 이 같은 특성이 ‘-이-’를 통사적 접사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⁸⁾ 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삼입 불가능 현상은 의존명사나 의존용언 구문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타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이선웅 2000). 그러나 엄밀히 본다면 ‘이다’ 구문의 삼입 불가능 현상과 의존 명사나 의존 용언의 그것은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이다’는 거의 대부분의 명사와 결합하지만(즉 제약이 별로 없지만) 후자의 경우는 특정한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매우 제약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들, 만, 뿐’과 같은 보조사는 삼입이 가능하므로 시정곤(1993)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의도 있다(김의수 2003, 최규수 2003). 그러나 이미 시정곤(1995)에서도 언급했듯이 보조사의 삼입 가능성은 필자도 인정한 바이다. 정작 시정곤(1993)에서의 핵심은 ‘이다’가 본용언이라면 다른 용언이 그러하듯이 선행성분과의 사이에 수식어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철수가 밥을 많이 먹었다/철수가 대학생이 드디어 되었다),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다’는 본용언과는

8) 김창섭(1992)에서는 ‘-이-’는 ‘-답(다)’ ‘-같(다)’와 함께 형태론적으로 자립성이 없이 여기에 의존하여 나타날 뿐이며, 여기와의 사이에 다른 요소들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형태론적으로는 접미사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이 단어형성의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파생접미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파생과는 분리하여 의존적 형용사로 보고 있다.

구분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지, 삽입 불가능 자체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다.

5. 구개음화 현상의 문제

시정곤(1993)에서는 ‘이다’가 선행명사와 결합할 때,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특이한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주장이다.

(8) 이것은 논이고 저것은 밭이다.[바치다/*바티다]

국어에서 ‘ㄷ, ㅌ’ 구개음화현상은(통시적이든 공시적이든) /i/ 앞에 형태소 경계를 동반할 때 이루어지므로(갈-이→[가치], 단-히-(다)→[다치]), 밭-이(주격조사)→[바치]), 만약 ‘밭이다→[바치다]’의 구개음화현상을 겪는다면, ‘밭’과 ‘이’의 경계는 형태소 경계가 되어야 한다. 만약 ‘-이-’가 독립용언이며 따라서 단어라면 ‘밭’과 ‘이’의 경계는 단어경계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9) 가. 밭이랑에 씨를 뿌렸다.

나. 밭이랑: 밭##이랑 → [반니랑]

다. 머리에 술 이고 가는 할머니.

라. 술 이(다): 술##이 → [손니]

(9)는 /i/ 앞에 단어경계가 있을 때이다. 이러한 경우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8)에서 ‘밭이(다)’의 경계는 단어경계가 아닌 형태소 경계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접사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⁹⁾ 통사적 접사설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 논의들도 이

9) 심사자는 이 부분을 음운론적 사실(형태소경계)과 통사론적 사실(단어경계)로

접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이선웅 2000, 최규수 2003, 황화상 2005).

양정석(2001:392)에서는 ‘팔입니다’가 /파칩니다/로 발음되기도 하지만 /팔#임니다/로 발음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들어 ‘이다’의 음운론적 의존성이 접사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성립하려면 ‘발음’의 경우 /바출/ 또는 /바틀/로 발음된다고 해서 ‘을’을 접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설령 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파칩니다/로 발음되는 현상은 어차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은 있다.

김의수(2003)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그는 ‘이’를 형

구분하여 처리하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말은 구개음화현상이 ‘이’가 형태소경계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되지만 그렇다고 통사적 접사의 설정을 위한 결정적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필자도 이 지적에 동감하면서 구개음화현상이 ‘이’를 접사로 볼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심사자의 지적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필자의 견해는 통사론적 측면에서도 ‘이’를 단어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통사적 접사’라는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소위 형태음운론적 정보라는 것이 그 차원에서만 끝나지 않고 통사층위에서 통사적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격대상이나 수식의 문제 등은 전형적인 통사론적인 문제인데, 이들에 속성에 ‘이’의 형태적 속성이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이러한 주장은 형태론과 통사론의 상호작용이 중요시되던 80년대 언어이론의 영향이기도 하다. 셋째, 심사자는 두 층위를 구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언급하였지만 그것은 기술의 편의성이자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정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음운론적 사실(형태소경계)과 통사론적 사실(단어경계)이 왜 ‘이다’ 구문에서는 달라져야 하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견해로 오미라(1991), 엄정호(1993) 등의 접어(clitics)설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다’를 통사론적으로는 하나의 단어이지만 형태(음소)론적으로는 의존성을 띤 접어라고 봄으로써 구개음화 현상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은 고창수·김원경(1998)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는 ‘이다’가 활용되거나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접어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보았다. 한국어에서 접어 설정의 타당성 문제는 김원경(2000)을 참조하기 바란다.

식동사로 간주하면서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LF와 PF에 가서 LF-접사와 PF-접사로 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구개음화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그 이론적 타당성은 차지하고라도 일단 선행어와 ‘이’의 경계가 형태소 경계라는 본고의 주장을 오히려 더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6. 생략 가능성의 문제

‘-이-’의 생략은 선행어의 음운론적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선행어의 말음이 자음일 경우는 반드시 나타나지만(학생이다/*학생다) 모음일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다(바보이다/바보다). 이는 ‘-이-’가 선행어의 음운론적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면에서는 ‘-이-’가 선행어에 가시적이라 할 수 있다.

선행어에 가시적인 요소는 접사이다. 소위 격조사들(가/이, 은/는, 을/를, 으로/로 ...), 부사형어미 ‘-아/어’, 시제형태소 ‘-았/었-’ 등이 선행어의 음운론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다. 즉 접사라고 일괄할 수 있는 요소들은 선행어의 음운론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여간은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의 생략 가능성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 비판을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생략현상이 그리 규칙적이지 않으며, 둘째, 음운론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셋째, ‘하’와 같이 다른 용언에서도 생략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비판은 우리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통사적 접사설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비판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남길임(2004:28)에서는 ‘이’의 수의적 생략현상이 ‘이다’가 용언이라는 견해에 대한 직접적인 반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몇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의 생략은 필수적 굴곡접사의 생략현상과 다르며, 음운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다(세부적인 내용은 차이를 보이겠지만 이승재(1994), 하치근(1996), 송정근(2001), 김의수(2003), 최규수(2003) 등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10) 가. {*포도이나/포도나} 먹어라.

나. {떡이나/*떡나} 먹어라.

(11) 가. 그것은 맛이 신 {포도이나/*포도나}, 먹을 수 있지. (이승재 1994)

나. 김 선생은 근본이 학자{이어서/*어서},
돈과는 거리가 멀다.

(12) 가. 그가 (천재임이/*천재임) 밝혀졌다. (송정근 2001)

나. 그가 (천재임에/*천재임에) 틀림없다.

물론 이 지적대로 ‘이’의 생략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또 동일환경을 갖는 내포문에서는 ‘이’를 생략할 수 없다.¹⁰⁾ 그러나 문제의 초점은 ‘이’의 생략이 필수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또 모든 구문에서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수의적이든 국부적이든) ‘이’의 생략현상이 음운론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용언도 생략이 될 수 있다는 논지도 가능하다. 실제로 ‘이’의 생략을 ‘하’의 생략과 비교하는 논의도 있다(하치근 1996, 이선웅 2000,¹¹⁾ 송정근 2001, 남길임 2004)¹²⁾

10) 관형구성에서의 ‘이’의 생략불가능과 명사화 문제는 이미 시정곤(1993)에서 언급한 바 있다.

11) 이선웅(2000)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다. 일부 의존적 단어에서 수의적인 생략이나 축약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밥이 먹고프다, 집에 가야겠다, 하라면 해야지)

(13) 가. 너도 공부 좀 해야 {하/0}겠다.

나. 당장은 공부를 해야 {하/*0}니, 나중에 이야기 하도록 하자.

‘이’와 ‘하’가 형식동사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이런 토대 위해서 이들의 생략 가능성을 함께 묶어 논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는 특정 구문에서 생략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음운론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이다. 국어에서 용언어간이 선행어의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수의적이든 국부적이든)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가? 통사적 접사설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7. ‘이다’와 ‘아니다’ 문제

‘이다’의 통사적 성격과 의미적 성격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이다’와 ‘아니다’ 구문을 동등하게 놓고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어문법에서 ‘아니다’ 구문은 ‘이다’ 구문의 특수성(격표지 실현문제와 서술어 자릿수 문제 등)의 이면을 밝혀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사적 접사설에서는 ‘-이-’의 속성이 그 부정문인 ‘아니다’ 구문에서도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14)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

위의 ‘아니다’ 구문에서는 ‘이다’ 구문과는 달리 선행 명사구에 격표

-
- 12) 김의수(2003)과 최규수(2003)에서는 ‘이’를 형식동사 또는 의존용언으로 간주하고 ‘하다’와 함께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규수(2003)에서는 시정곤(1994)의 통사적 접사를 파생접사로 간주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논의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지가 실현된다. 시정곤(1993)에서는 그 이유를 핵 이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였다. 즉, ‘아니다’ 구문에서는 ‘이’가 ‘아니’에 의해 의존성이 해결되어, 선행 명사구에서 핵 ‘학생’이 접사 ‘-이-’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명사구에 격이 부여된다는 설명이다. ‘이’의 의존성과 핵이동이라는 기제로 ‘이다’와 ‘아니다’ 구문의 문법적 현상을 일관되게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과연 다른 논의에서 이러한 시도가 가능한가? 또한 이러한 가정은 두 구문이 보이는 논항구조나 의미적인 면의 동일성도 자연스럽게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비판은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아니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즉, 공시적으로 ‘아니다’를 ‘아니+이다’로 분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통사적 접사설의 주된 관심은 아니다.

이선웅(2000:83)에서는 어휘화된 ‘아니다’를 공시적으로 ‘아니+이다’로 분석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의수(2003)과 황화상(2005)에서는 ‘아니다’구문이 부정극어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누구도 학생이 아니다) ‘아니다’는 공시적으로도 ‘아니+이다’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한다.

8. ‘이’, ‘답’, ‘같’의 문제

‘이다’ 구문의 문법적 지위를 논의할 때, 고려되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이다’ 구문과 유사한 현상을 보이는 ‘답다, 같다’ 구문을 한 데 묶어 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 (15) 가. 그는 [나의 의사]이다.
나. 그는 [훌륭한 의사]이다.

(16) 가. 그는 [대한민국의 군인]답다.

나. 그는 [훌륭한 군인]답다.

(17) 가. 그는 [나의 아버지]같다.

나. 그는 [믿을 만한 사람]같다.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다’ 구문은 ‘답다, 같다’ 구문과 같은 문법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이’의 정체를 무엇으로 보든 그것은 이들 ‘이, 답, 같’의 유형을 함께 매끄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었다. 하치근(1996)과 최기용(2001)에서는 ‘이다’와 ‘답다’가 보이는 부정의 양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한 데 묶어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18) 가. 철수가 학생이다.

나. 철수가 학생이 아니다.

(19) 가. 그가 사람답다.

나. 그가 사람답지 않다.

물론 이 지적은 의미 있는 것이며, 이들의 부정문의 양상이 왜 서로 다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필요로 한다. 또한 과연 이 차이의 정도가 이들을 서로 다른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냐의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마찬가지로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다. 통사적 접사설의 핵심은 이들을 한 범주에 묶을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보다는 공통점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설령 하치근(1996)과 최기용(2001)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다’와 ‘답다’를 분리해서 처리한다고 하자. 그래서 해결된 것은 무엇인가? 결국 ‘답다’가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이런 식의 비판은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통사적 접사설 뿐만 아니라 의존 용언설 또한 ‘이’, ‘답’, ‘같’의 문법적 유사성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³⁾ 이 대목에서는 우리는 김창섭(1992)의 결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도 위의 세 구문의 유사성을 포착하고 “-이-’ ‘-답(다)’ ‘-같(다)’는 형태론적으로 자립성이 없이 여기에 의존하여 나타날 뿐이며, 여기와의 사이에 다른 요소들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접미사”라고 하여야 할 것이지만, “형태론적으로는 접미사라고 하여도 이들이 단어형성의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파생접미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파생과는 분리하여 의존적 형용사”로 보고 있다. 그리고 “어느 부류의 형용사는 어떠한 격표지도 가지지 않는 논항을 가지며, 그 논항에 형태론적으로 접미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의 문법체계를 어떻게 수정하여 수용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이제 통사론의 문제가 되어 본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김창섭(1992)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이-’ ‘-답(다)’ ‘-같(다)’는 한 데 묶어 고려했다는 점, 둘째, 형태적으로 이들을 접미사로 간주했다는 점, 셋째, 파생접미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의존적 형용사로 처리했다는 점, 넷째, 격표지 비실현 문제와 통사부에서 논항에 접미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다섯째, 기존 문법체계로서 이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본고의 관점에서 보면 흥미롭게도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통사적 접사설에서 모두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이다.¹⁴⁾

13) 그러나 ‘이’를 주격조사로 간주한다면 이들의 유사성에 대해 아무런 실마리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을 듯하다. ‘답’과 ‘같’을 조사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14) 심사자는 ‘이다’의 ‘이’를 통사적 접미사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다’의 정체를 밝히는 데 있어 매우 협소한 부분적인 측면밖에 건드리지 않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통사적 접미사 주장은 ‘이’의 통사적 범주(품사)에

9. 결론

이상에서 간략하게나마 ‘이다’ 구문과 통사적 접사설에 대해 재검토해 보았다. 통사적 접사설의 주된 의도는 ‘이다’의 ‘이’의 정체가 무엇이나보다는 그에 앞서 ‘이다’ 구문이 보여주는 다양한 문법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만족시킬 것인가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가정에서 ‘이다’를 통사적 접사로 가정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일관되게 그리고 설명력 있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통사적 접사설을 주장하는 견해에도 차이가 있으며, 각자 이론적 토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다’ 구문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음을 전제하고 통사적 접사는 그 가운데 문법적 현상을 설명하려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문법적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이다’ 구문이 보이는 다양한 현상을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게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가정했다.

본고에서는 그간 통사적 접사설에 대해 비판한 논의를 부분부분 재검토해 보았는데, 그 가운데서는 의미 있는 비판도 없지 않으나, 대부분의 비판은 그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기본 전제를 오해하여 생긴 것도 있고, 개별적인 문제를 전체적인 문제로 확대해석하여 생긴 것도 있으며, 논리적 오류를 범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존 형용사’설은, 사실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투고자와 비슷한 점이 있으나, 바로 이 문제에 주목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지적은 한편으로는 옳고 한편으로는 옳지 않다. ‘이’의 품사가 무엇이나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심사자의 지적이 옳지만, 품사를 언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를 품사로, 즉 단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므로 이 면에서는 지적이 옳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의 통사적 접미사는 새로운 통사적 범주이며, ‘이’를 비롯하여 조사 어미 등이 여기에 속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해 생긴 것도 있다.

본고의 견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통사적 접사설이 ‘이다’ 구문이라는 커다란 산의 모든 정체를 한꺼번에 다 밝혀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없으며, 어쩌면 그래서도 안 된다. 그리고 통사적 접사설이 제시한 주장에 대한 논리적 비판과 이론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이 제기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한다. 다만 드러난 현상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은 채, 특이한 예나 현상을 들어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비판이라고 하기에 어렵지 않은가 한다. 그것은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다’ 구문에 대한 논의는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인지도 모른다.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씩 차근차근 요리조리 따져보고 곰곰이 생각해 볼 때다. 많은 이의 관심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고창수. 1985. 어간형성접미사에 대하여, 『한국어학연구』 7. 홍문각.
 고창수. 1992. “국어의 통사적 어형성.” 『국어학』 22.
 고창수 · 김원경. 1998. “‘이다’는 동사인가?” 『한성어문학』 17.
 김광해. 1983. “계사론.” 『이웅백박사 회갑기념논문집』 보진재.
 김성규. 2001. “‘이-’의 음운론적 특성.” 『국어학』 37.
 김원경. 2000. 「한국어 격 정보와 자질연산 문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의수. 2003. 「국어의 격과 의미역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정남. 1998. 「국어 형용사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창섭. 1992. “국어 파생어에 대한 통사론적 해석.” 『국어학회 제19회

공동연구회발표요지」.

- 남길임. 2004. 「현대국어 ‘이다’ 구문 연구」 한국문화사.
- 박진호. 1994. 통사적 결합관계와 논항구조. 「국어연구」 123.
- 서정목. 1993. “국어의 구절구조와 엑스-바 이론(草稿).” 「한국언어학회 1993 겨울발표회 발표요지」.
- 성광수. 1979. 「국어 조사의 연구」 형설출판사.
- 송정근. 2001. “‘이다’의 형태론적 특징과 문법적 지위.” 「국어학논집」(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5, 도서출판 역락.
- 시정근. 1992. “통사론의 형태정보와 핵 이동.” 「국어학」 22.
- 시정근. 1993. “‘-이(다)’의 ‘-이-’가 접사인 몇 가지 이유.” 「주시경학보」 11: 143-50.
- 시정근. 1994/1998. (수정판)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한국문화사.
- 시정근. 1995. “핵이동과 ‘-이/답/히/갈-’의 단어형성.” 「생성문법연구」(생성문법학회) 5-2.
- 시정근. 2001. “양정석(2001)에 대한 토론문.” 「국어학」 37.
- 시정근. 2002. “최기용(2001)에 나타난 몇 가지 의문들.” 「형태론」 4-2.
- 시정근. 2005. “이다 구문과 통사적 접사” 「한국어 계사 ‘-이(다)’의 쟁점 워크숍 발표집」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세종전자사전개발연구단.
- 안명철. 1995. “‘이’의 문법적 성격 재고찰.” 「국어학」 25.
- 양정석. 1986. “‘이다’의 의미와 통사.” 「연세어문학」 19.
- 양정석. 2001. “‘이다’의 문법범주와 의미.” 「국어학」 37.
- 엄정호. 1989. “소위 지정사 구문의 통사구조.” 「국어학」 18.
- 이선웅. 2000. “현대국어 ‘(-)이-’의 품사 분류와 자릿수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 「국어학논집」(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 도서출판 역락. 71-92.
- 이승재. 1994. “‘-이-’의 삭제와 생략”, 「주시경학보」 13. 탑출판사.
- 이현희. 1994. “계사 ‘-이-’에 대한 통시적 고찰.” 「주시경학보」 13. 탑출판사.
- 임홍빈. 1989. “통사적 파생에 대하여.” 「어학연구」 25-1. 서울대 어학연구소.
- 임홍빈. 1997. 국어 굴절의 원리적 성격과 재구조화. 「관악어문연구」 22.
- 최규수. 2003. “한국어 통어적 가지에 대한 몇가지 문제.” 「한민족문화」 2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77-214.

- 최기용. 2001. “‘-이다’의 ‘-이’는 주격 조사이다.” 『형태론』 3-1. 101-112.
하치근. 1996. “국어 통사적 접사의 수용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한글』
231.
황화상. 1996. 「국어 체언서술어의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황화상. 2005. “‘이다’의 문법범주 재검토.” 『형태론』 7-1.

시정곤(Shi, Chung-Kon)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305-701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373-1
전화 : (042) 869-4630
전송 : (042) 869-4610
전자우편 : chungkon@kaist.ac.kr

원고접수일 : 2005. 6. 27.
게재결정일 : 2005. 8. 4.